

새정치 ‘전대 룰’ 권역별 최고위원제 핫 이슈

선거인단 구성비·정책대의원 배정도 계파간 신경전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확정…사퇴시기는 엇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을 가늠할 ‘룰의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경선을 확정 시한(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인단 구성비, 정책대의원 배정, 권역별 최고위원제 등 핫 이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2일 새정치연합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혁신위가(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김성곤 전준위원장이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국 5개 권역별로 각각 1명씩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권역

별 최고위원 도입안을 구두 보고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문화상 비대위원장은 “전대준비위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하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대준비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로 격론을 벌였으나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최고위원제 도입과 관련, 금주 내에 소속 의원과 당무위원이 함께하는 정책 의총을 열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결속력이 강한 진노(진노무현)계 의원들이 주로 찬성하는 반면, 비노(비노무현)계와 호남권 의원들은 반

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단 구성비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의 ‘살바싸움’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노계가 일반당원·국민 투표 비중을 30%로 늘릴 것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계파는 일반당원·국민 투표를 2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나머지 계파 사이에서도 권리당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높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복잡해진 형국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 6월 전대 때 도입된 ‘정책대의원’ 제도를 이번에도 노동단체에 배정하는 식으로 적용하자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규모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 정책대의원을 확대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노동단체와 당

의 정책협약이 유효한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예 정책대의원 배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권·대권 분리론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출마자는 1년 전에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현행 당헌·당규를 ‘대선 2년 전 사퇴’로 고치자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당권 주자 간의 유불리에 따라 확대되고 있어 소속 계파 간 대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일반당원·국민의 투표 비율 상황이나 정책대의원 배정은 외부 지지기반이 탄탄한 진노계에 유리한 물이라는 점에서 비노 진영의 반발이 크고, 대선 출마 전 사퇴시킨 문제는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문제인 의원을 겨냥한 논의여서 진노계가 반대하는 분위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모 경정 집앞 취재 열기 2일 오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모 경정의 집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취재진이 대기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던 정운희씨와 ‘정운희 국정개입’ 문건 논란의 당사자인 조웅천 전 청와대 공작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전’을 벌이면서 권력암투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운희·비서3인 “만난 적 없다”…조웅천 “정씨, 4월 이재만과 연락” 반격 =문건 유출사건 이후 정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물론 3인 측근 비서관들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10인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비서관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도 “팩트는 빵(0) 퍼센트다”라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운영위에서 “2003년인가, 2004년 정씨를 마지막

정운희-조웅천 폭로전…‘권력암투’ 논란 증폭

정·비서 3인 “서로 만난 적 없다” 조 “정씨,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

으로 만났다”며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4월10~11일 청와대 공용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고, 이후 ‘정운희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4월11일 퇴근길에 이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운희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아

울러 “정씨의 전화를 받지 않은 그 다음주 화요일(4월15일) 홍경식 민정수석이 갑자기 불러 갔더니 ‘그동안 수고했다’며 그만 두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조웅천 “靑 제2부속실 경찰인사 관여” 의혹도 제기…권력암투설 증폭=조 전 비서관은 문건 신빙성에 대해 “6할 이상이라고 본다”고 반문하면서 “나는 위치도 그(watchdog·감시견)다. 위험을 보면 짖는 게 임무였고, 그 임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겨냥, “작년 10월말, 11월 초 청와대에 들어올 예정인 경찰관 1명을 검증하다가 ‘부담(스립다)’ 판정을 내렸는데 안 비서관이 전화해 ‘이 일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달 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후임들을 다 단수로 찍어서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반면, 정씨는 ‘정운희 국정개입 문건 유출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정씨는 지난달 29, 30일 문건작성자인 박모 경정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기(박모 경정)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조작된 문건을 공식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중도성향 의원들 勢결집 나섰다

민집모, ‘선거구 재획정’ 관련 집담회 열어

내년 전대 앞두고 뭉치는 친노 겨냥 한듯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2일 선거구 재획정 이슈를 지렛대로 삼아 세 결집에 나섰다. 중도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이날 ‘선거구 재획정이나 선거제 개편이냐’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 진영이 특유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주류 진영은 구심점 없이 느슨하게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문제를 소재 삼아 ‘세 응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집담회에는 민집모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17명이 참석, 평소 정례 모임보다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집담회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발제자로 나서 선거구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호남의 김동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완화에 있지만 복수의 당선인을 뽑는 기초의원선거에

서 영호남의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대표로 나온 김영환 의원은 “틀림없이 선거구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정파 싸움, 게리맨더링이 벌어져서 국민에게 추태 중 추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확정 결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제3의 독립적 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문건 정치권 연일 공방

與 “유출사건” vs 野 “권력암투”

청와대 비선 실제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2일에도 이어졌다. 여권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 ‘정운희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계속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찌라시 내용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면서 “여의도(정

가)에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국회 종료 직후부터 상설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운희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비선 실제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소속인 진성준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사건은 일종의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과 암투의 산물로,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운희씨간 갈등설이 회자돼 왔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개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냥(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동반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총액 당행시 상형 물품으로 증정, 제세과금 본인부담

선물2

(기념품(박))

[핸드크림]

[치약세트]

선물3

(개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클라식릭 밀백종기세트]

[세라믹코팅 냄비]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입고액

- 정기예금 10,000원 이상 가입고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실행고액

- 생명경제, 자동차보험 가입고액

- 전자기금원 신규자

- 지동이제 3건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1회이상 이용고액)

※ 경품추첨일까지 정상유지 및 이용 기록저장

※ 상시 자격기준은 화면에 한함

경품추천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천후 공고)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풍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12.12(금) 오전 10:00~
		목회학과(D.Min.)	
	석사	신학과(Th.M.)	12.13(토) 오후 3:00~
		신학연구학과(M.A.T.)	
		음악학과(M.A.)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2.12(금) 오전 10: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13(토) 오후 3: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한국어교원학과(M.A.)	

학 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모질,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